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하는 생활, 아침마다 부흥되는 생활, 목양하는 생활을 합

성경: 시 110:3, 벧전 1:8, 2:7, 애 3:22-23, 요 21:15-17, 시 23:1-6

I. 시편 110편과 23편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과 아침 부흥과 목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시한다.

- A.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즐거이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의 청년들이 새벽의 태에서부터 나오는 이슬처럼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시 110:3.
1. 비록 교회가 타락되었을지라도 수세기에 걸쳐 헌신의 광채, 헌신의 아름다움 안에서 즐거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들의 노선이 있어왔다. 우리가 자신을 즐거이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광채로 아름답게 될 것이다—마 26:6-13.
 2. 그리스도께는 또한 우리가 새벽의 태에서부터 나오는 이슬이 되어 그분을 적셔드리는 것이 필요하시다.
 - a.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새벽의 태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적시는 이슬로 잉태될 기회를 놓칠 것이다.
 - b.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적셔드릴 수 있도록 새벽의 태로 인해 잉태되고 산출되는 이슬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며 주님께 반응하기를 바란다.
- B.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목양하시는 것을 거쳐, 오는 시대에 자신의 왕국에 이르기까지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일군의 시편들이다.
1.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 안에서 산출되어 그분의 교회를 형성하는 그분의 많은 형제들에 관한 것이다.
 2. 이제 교회는 형성되었고, 우리는 부활 안에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 23편의 실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를 왕국 시대로 인도할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3.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II.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를 가짐으로써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마 23:16-26, 삼상 16:7, 눅 16:15, 9:54-56, 벧전 3:4.

- A. 믿는 이들이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구원에 속한 다음의 방면들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1. 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가치평가—시 118:22, 벧전 2:4, 7.
 2. 십자가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가치평가—고전 1:18.
 3. 사람의 일상생활의 필수품에 비교하여, 하나님의 왕국과 의에 대한 그들의 가치평가—마 6:32-33.
 4. 그들의 친척에 비교하여, 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가치평가—마 10:37-38, 눅 18:26-30.
 5. 온 세상에 비교하여, 사람의 혼에 대한 그들의 가치평가—마 16:26, 4:8-11, 계 18:13, 벧전 4:19.
 6.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에 비교하여, 그들의 몸에 대한 그들의 가치평가—마 18:8-9.
 7. 주님의 노예가 되고 서로에게 노예가 되는 것에 비교하여, 계급제도 상의 지위에 대한 그들의 가치평가—마 20:25-27.
 8. 땅에 속한 보배에 비교하여, 공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가치평가—욥 22:23-28, 마 12:18-21, 사 42:1-4.

- 9. 보이지 않는 보상에 비교하여, 죄를 누리는 것에 대한 그들의 가치평가—히 11:24-27.
- 10. 모든 것에 비교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그들의 가치평가—빌 3:7-8, 벧전 1:8.
- B.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히 바뀌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전 존재를 우리의 지극히 뛰어난 몫으로 선택하도록 주님께 빛을 구해야 한다—막 9:7-8, 고후 2:10, 4:7, 벧전 1:8.
- C. “네가 만일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렘 15:19, 비교 16절.

III.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아침마다 부흥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애 3:22-23, 시 119:147.

- A.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롭게 되기 위해 우리의 태양이신 주 예수님께서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고후 4:16, 사 5:31, 잠 4:18.
- B.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나무를 태우고, 거기에 번제물을 벌여 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을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레 6:12-13.
 - 1.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제단 위에 나무를 태우는 것은 섬기는 이가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그분의 음식으로 받으시도록 거룩한 불에 더 많은 연료를 더하여 불길을 강화함으로써 하나님의 갈망과 협력해야 함을 상징한다(비교 롬 12:11, 딤후 1:6-7). 아침은 타오르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 2. 번제물을 불태우는 것은 화목제의 달콤함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속적인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화목제의 기름을 태우는 것으로 상징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달콤한 교통을 위한 기초로 놓여야만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3.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둘 다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절대성과 삼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누림이 모두 불태움의 문제라는 것을 상징한다.
- C. 매일 새롭게 부흥되는 것은 매일 신선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온 일생 동안 이러한 변화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 결국 성숙에 이를 것이다—고후 3:18, 롬 12:2, 히 6:1상.

IV.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목양을 받고 하나님에 따라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 A. 주님은 사도의 사역을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키시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 곧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게 하셨다—요 20:15-17, 행 20:28, 벧전 5:2.
- B. 여호와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다음의 다섯 단계에서 우리의 목자이시다—시 23:1.
 - 1. 푸른 풀밭과 쉼 만한 물가에서 누림—2절.
 - 2. 의의 길들에서 부흥되고 변화됨—3절.
 - 3.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부활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함—4절.
 - 4. 전쟁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 깊고 더 높이 누림—5절.
 - 5. 여호와의 집 안에서 신성한 선함과 인자함을 평생 누림—6절.